

공원 탐방

5·18공원



쭉 뻗은 산책로를 따라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산책하고 있다

# 인근 주민들 “내 건강 지키는 보물 1호”

여름 같은 날씨가 계속되던 지난달 14일 오전 7시경 찾은 광주시 서구 쌍촌동 5·18공원에는 이미 수백여명의 인근 주민들이 각자의 자리를 잡고 한창 운동중이었다.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 준 주부부터, 아침잠이 없는 노인, 출근길을 앞둔 회사원까지 공원은 이들에게 언제나 고마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5·18공원의 입구에 해당되는 무각사 앞에 막차를 주차한 전업주부 김모(45·서구 치평동)씨는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중학생인 아들을 학교까지 배려다준 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를 만나 정확히 1시간 동안 산책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

“새 소리와 맑은 공기 등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듭니다. 다만 바람이 있다면 이 공원에 있는 나무와 풀, 새의 이름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해요.”

김씨는 시간이 아깝다며 바쁘게 발걸음을 옮겼다. 걷는 이 중에는 윤권중(80·서구 쌍촌동) 할아버지도 있었다. 일주일에 5일을 이 공원에서 보내고 있는 윤 할아버지는 “내 보물 1호와 같은 공원”이라며 “숲 우거진 이 길을 천천히 45분간 걸으면 한결 건강해진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무각사 주차장 옆 길을 통해 공원으로 들어서면 두 갈래로 길이 나뉜다. 오르막길을 오르면 팔각정인 ‘오월루’와 국조인 단군 왕검을 모신 ‘대성전’을 볼 수 있으며, 그 길은 아랫길과 만나고 150m쯤 더 가면 다시 5·18 기념문화센터, 조각 및 추모공간, 학생교육문화회관으로 향하는 길과 구부러져 무각사를 크게 도는 길로 구분된다. 이 길 중간 중간에 잔디 운동장, 벤치, 건강기구 등이 배치돼 운동과 여유를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배려했다.

그러나 광주지역 내 대부분의 근린공원과 마찬가지로 이 공원 역시 주변과의 연계가 부족하다는

매일 수백명 찾아 산책·운동 “주변과 접근성 떨어져 불편 자전거·도보 진입로 개설”

점, 운동 이외에 공원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거의 없다는 점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5·18공원은 윤천로, 상무민주로, 내방로, 다사당 1·2길로 둘러싸여 있다. 또 주변에는 이 공원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가 있다. 이들이 공원으로 접근할 때 자동차가 아닌

자전거나 도보로 손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휴일이거나 밤시간 도심 속 공원에서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캠프 장소를 조성,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이용자들의 주장이다.

자전거로 출퇴근하면서 5·18공원을 지나치고 있다는 고모(45·서구 금호동)씨는 “도심 속 녹지를 어떻게 하면 그 기능을 최대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지만 행정기관은 녹지로 놔두면 그냥 사람들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이 좋은 하드웨어와 접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5·18공원을 상징하는 조각 및 추모공간. 위는 공원 입구에 해당되는 무각사 뒤에 위치한 오월루. 꼭대기에서 보면 상무지구가 일출 눈에 들어온다.



도시제안

지구온난화 문제를 위한 다자간 국제회의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1972년 스톡홀름에서 113개국 대표가 모인 유엔인간환경회의가 개최됐고, 1987년에는 환경과 국가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가 열려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정립했다.



김광훈

1997년 교토의정서가 채택된 이후, 미국은 2001년 교토의정서 탈퇴를 선언했으며 그로부터 4년이 지나도 동안 비준한 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구 전체의 55% 이상을 차지하면서 2005년 2월 16일 교토의정서가 발효됐다.

교토의정서의 근본내용은 36개 선진국에서 2008~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 비해 평균 5.2%를 감축해야만 하는 것이다. 감축대상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2), 아산화질소(N2O), 메탄(CH4), 과불화탄소(PFC), 수소불화탄소(HFC), 육불화황(SF6) 등 6가지다.

## 단체장 끌고 주민 밀고 기후변화 대응하는 생태도시 광주 만들자

이제 우리 지방정부도 기후보호전략을 가져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 억제에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천이 특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연간 3.2t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으며 시민 한사람이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흡수를 위해 일생 동안 978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한다. 자동차 주행거리가 연간 2만km로 자동차 천구 미국보다 많고 일본의 2배에 이른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자가용을 절반만 이용해도 온실가스를 1.5t 이상 줄일 수 있다.”

상당수 시민들이 그저 알고만 있는 이러한 이야기가 실제 생활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정부는 시민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시민참여를 이끌어 내야하며, 도시계획에 따른 신도시개발 또는 도시재개발 과정에 지속가능에너지 도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 자원절약,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촉진,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둔 도시교통정책 추진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기후보호에 대해 단체장의 강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는 말이다. 세계기후변화시정회의를 창설한 교토도 시장이 적극 나섰기에 가능했고, 미국에서 가장 앞서는 강력한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경우도 주지사의 강한 리더십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시장직접 나서고 앞서서 에너지소비병도시 광주를 위해 에너지이용효율화와 에너지절약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과 보행자와 자전거, 대중교통 등이 중심이 되는 교통체계 구현과 시민들의 쾌적하고 생태적인 삶을 위한 실천 가능한 도시계획 등을 제시하고 실천해나가야 한다.

(광주녹색교통운동 사무국장)

#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매우 잘 들립니다. \*안보입니다. \*가격이 맘에 듭니다.

국제보청기를 착용하면 매우 잘 들립니다. 국제보청기는 착용 후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국제보청기의 가격은 저렴하여 고객님들께 만족을 드립니다.



본점 (062) 227-99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81-1  
총장점 (062) 227-9970

순천점 (061) 752-9940  
목포점 (061) 262-9200  
익산점 (063) 851-2422

since 1982

